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ㄹ'로 끝나는 명사 '별', '술', '이틀'이 ⑦ '발가락', ⑧ '소나무', ⑨ '이튿날'과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받침 'ㄹ'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한다.

'소나무'에서는 '발가락'에서와는 달리 받침 'ㄹ'이 탈락하였고, '이튿날'에서는 받침이 'ㄹ'이 아닌 'ㄷ'이다. 모두 'ㄹ' 받침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현대 국어에는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뀌거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대 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발가락'은 중세 국어에서 대부분 '밟 가락'으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 'ㅅ'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밟 가락'은 구로 파악된다. 이는 '밟' 업지 가락(업지발가락)과 같은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후 'ㅅ'은 점차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고 합성이 내부의 사이시옷으로만 흔적이 남았는데, 이에 따라 중세 국어 '밟 가락'은 현대 국어 '발가락[발까락]'이 되었다.

'소나무'는 중세 국어에서 명사 '솔'에 '나무'의 옛말인 '나모'가 결합하고 'ㄹ'이 탈락한 합성이 '소나모'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이 될 때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솔'의 'ㄹ'이 탈락하였다.

'이튿날'은 중세 국어에서 자립 명사 '이틀'과 '날' 사이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이틀 날'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ㅅ'은 '이틀 밤', '이튿 길'에서의 'ㅅ'과 같은 것이다.

[A] 중세 국어에서 '이틀 날'은 '이틀 날'로도 나타났는데, 근대 국어로 오면서는 'ㄹ'이 탈락한 합성이 '이튿날'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ㅅ'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 가고,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튿날'의 표기와 관련하여 "같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튿날'로 적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의 'ㄷ'은 'ㄹ'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중세 국어 '몫 사롭'에서 온 '몫사람'에서처럼 'ㅅ'으로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12. 윗글을 참고할 때, ⑦~⑨과 같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예를 <보기>에서 각각 하나씩 찾아 그 순서대로 제시한 것은?

<보기>			
무술(물+술)	쌀가루(쌀+가루)	① 솔방울, 무술, 날알	② 솔방울, 푸나무, 선달
난알(난+알)	솔방울(솔+방울)	③ 푸나무, 무술, 선달	④ 쌀가루, 푸나무, 날알
선달(설+달)	푸나무(풀+나무)		

① 솔방울, 무술, 날알
② 솔방울, 푸나무, 선달
③ 푸나무, 무술, 선달

④ 쌀가루, 솔방울, 선달

1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탐구 주제]									
○ '술가락'은 '젓가락'과 달리 왜 첫 글자의 받침이 'ㄷ'일까?									
[자료]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중세 국어의 예</th> </tr> </thead> <tbody> <tr> <td>• 술 자보며 쟈 놀느니(술가락 잡으며 젓가락 놓으니)</td><td>• 술 글(술가락의 끝), 젓 가락 글(젓가락 끝), 수저(수저)</td></tr> <tr> <td>• 물(물리), 물 사롭(웃사람, 여러 사람)</td><td></td></tr> </tbody> </table>		중세 국어의 예		• 술 자보며 쟈 놀느니(술가락 잡으며 젓가락 놓으니)	• 술 글(술가락의 끝), 젓 가락 글(젓가락 끝), 수저(수저)	• 물(물리), 물 사롭(웃사람, 여러 사람)			
중세 국어의 예									
• 술 자보며 쟈 놀느니(술가락 잡으며 젓가락 놓으니)	• 술 글(술가락의 끝), 젓 가락 글(젓가락 끝), 수저(수저)								
• 물(물리), 물 사롭(웃사람, 여러 사람)									
<table border="1"> <thead> <tr> <th>근대 국어의 예</th> <th>현대 국어의 예</th> </tr> </thead> <tbody> <tr> <td>• 숏가락 장수(술가락 장사)</td><td>• *술료 밥을 뜨다</td></tr> <tr> <td>• 웃사롭(웃사람)</td><td>• 숏가락으로 밥을 뜨다</td></tr> <tr> <td></td><td>• 밥 한 술</td></tr> </tbody> </table>		근대 국어의 예	현대 국어의 예	• 숏가락 장수(술가락 장사)	• *술료 밥을 뜨다	• 웃사롭(웃사람)	• 숏가락으로 밥을 뜨다		• 밥 한 술
근대 국어의 예	현대 국어의 예								
• 숏가락 장수(술가락 장사)	• *술료 밥을 뜨다								
• 웃사롭(웃사람)	• 숏가락으로 밥을 뜨다								
	• 밥 한 술								
※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중세 국어 '술'과 '저'는 중세 국어 '이틀'처럼 자립 명사라는 점에서 현대 국어 '술'과는 차이가 있군.
 ② 중세 국어 '술'과 '저'의 결합에서 'ㄹ'이 탈락한 합성이가 현대 국어 '수저'로 이어졌군.
 ③ 중세 국어 '술'과 '저'는 명사를 수식할 때, 중세 국어 '이틀'이나 '물'과 같이 모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할 수 있었군.
 ④ 근대 국어 '숏가락'이 현대 국어에 와서 '숟가락'으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튿날'의 경우와 같군.
 ⑤ 현대 국어 '숟가락'과 '웃사람'의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는 중세 국어 '술'과 '물'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ㄹ'이 탈락한 후 남은 'ㅅ'의 발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군.

14. <보기>의 ①~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① 그는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다.	ⓐ	ⓑ
② 바다가 눈이 부시게 파랗다.	ⓑ	ⓒ
③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	ⓓ

- ① ①의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군.
 ② ②의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③ ③의 '별을'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이군.
 ④ ④의 '좋은'과 ⑤의 '반짝이는'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군.
 ⑤ ⑤의 '눈이 부시게'와 ④의 '반짝이는'은 수식의 기능을 하는군.

15. <보기>를 활용하여 국어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표제어 ①와 예문 ②, ③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① 약속 날짜를 너무 <u>발게</u> 잡았다.	ⓐ
② 서로 <u>발게</u> 앉아 더위를 참기 어려웠다.	ⓑ
③ 시간이 더 필요한데 제출 기한을 너무 <u>바투</u> 잡았다.	ⓒ
④ 어머니는 아들에게 <u>바투</u> 다가가 두 손을 움켜쥐었다.	ⓓ

<보기>	
ⓐ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	ⓐ
ⓑ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	ⓑ
ⓒ 시간이나 공간이 다불어 끊시 가깝다.	ⓐ
ⓓ 길이가 매우 짧다.	ⓑ
ⓔ 새로 산 바지가 밭이 다 보인다.	ⓐ
ⓕ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심하거나 먹는 양이 적다.	ⓑ
ⓖ 우리 아들은 입이 너무 밭어서 큰일이야.	ⓐ

ⓐ	ⓑ	ⓒ
① 발게	ⓐ	ⓐ
② 발게	ⓑ	ⓑ
③ 발게	ⓐ	ⓐ
④ 바투	ⓐ	ⓐ
⑤ 바투	ⓐ	ⓐ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짊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읊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같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읊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같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②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대진대, 정시 가·나·다군서 수능 100%로 선발



예체능, 수능 30%·실기 70% 반영

대진대학교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 가, 나, 다군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군별로 가군에서는 10개 학(부)과(글로벌 경제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지역학부, 수학과, 생명화학부,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휴먼건축

공학부) 신입생을 뽑는다.

나군에서는 12개 학(부)과(공공인재법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헌정보학과, 휴먼IT융합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에너지환경공학부, 컴퓨터응용기계공학과, 신소재학과, 산업공학과)이다.

다군은 9개 학(부)과(대순종학과, 한국어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문예창작학과, 현대조형학부, 디자인학부, 연극영화학부, 스포츠과학과)은 실기위주전형으로 선발하며 수능 30%, 실기 70%를 반영한다.

초과학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가, 나, 다군의 학(부)과는 수능 위주(일반전형)으로 선발하며 수능 100%를 반영한다. 단, 다군의 예체능계열(현대조형학부, 디자인학부, 연극영화학부, 스포츠과학과)은 실기위주전형으로 선발하며 수능 30%, 실기 70%를 반영한다.



한우정 입학홍보처장

수능성적 반영 방법은 국어, 영어, 수학(가/나)영역 중 상위 성적 2개 영역과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중 1개 과목을 반영한다. 이때 자연공학계열지원자의 경우에 한하여 수학(가)은 5%, 과학탐구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한국사는 지원자격으로 반영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대진대학교 소동상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문제	정답	배점	문제	정답	배점
12	②	2	13	⑤	3
14	③	2	15	⑤	2